

공정여행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공정여행 기업 P 사례 -

이재민*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공정여행 특성 사례연구 결과
- V. 결론

| 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의 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지역민 소외, 문화유산 훼손, 관광 콘텐츠의 획일화 등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광산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공정여행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부산은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산재하고 있는 곳으로, 부산의 공정여행은 기존 관광산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여행 P 기업의 활동과 실천의 사례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공정여행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연구의 질적 연구방법을

*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 jaymi@nate.com

수행하였고, 연구참여자 3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의 매죽지마을, 안창호랭이마을, 남천동 뽕 골목 등 부산의 숨어있는 지역 명소를 발굴하였고, 여행 상품 및 기념품 등 콘텐츠를 제작함에 따라 공정여행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지역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 지역여행을 기획, 운영함에 따라 지역예술가들의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셋째, 공정여행 콘텐츠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었고, 지역주민들을 관광해설사로의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넷째,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위안부 여행테마를 통해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소 심각할 수 있는 주제를 쉬우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여행, 과정을 중시하는 질적 여행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 사례를 통해 부산의 공정여행은 지역공동체의 회복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공정여행, 지역문화 콘텐츠, 착한 여행, 질적 여행, 지역공동체

I. 서론

우리나라는 과연 공정한 나라일까?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더욱 분노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현실의 민낯이 드러나 촛불을 든 것은 아닐까?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보면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대중적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근 관광과 여행 산업에도 기존 관광패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그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공정’이 주목 받고 있다. 이처럼 공정

1) 황희정·이훈, 「공정관광의 개념분석 -이론화를 위한 고찰-」, 『관광학 연구』 35-7, 2011, 78쪽 참조

여행에 대한 관심은 지속 가능한 관광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다양한 공정여행사가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산업은 과거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인식될 만큼 많은 기대를 한껏 받았지만, 오히려 관광산업의 양적 팽창은 환경오염 및 파괴, 문화유산의 훼손, 대규모 기업의 수입 편중, 여행지 거주민들의 소외 현상, 획일적인 여행 콘텐츠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²⁾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리고 간 쓰레기에 관광지는 오염되고,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관광 콘텐츠의 개발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이들의 소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콘텐츠 개발은 지역정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획일적인 관광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문화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사회적·문화적인 문제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웰빙 의식, 윤리적·생태적인 인식과 결합하여 공정여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여행은 착한여행이라고도 하며, 관광의 생산자인 지역주민과 소비자인 관광객이 대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을 의미한다.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의 공정여행 기업 P는 기존 관광산업에 대하여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P 기업 A 대표의 문화공간에 대한 개인적 관심은 문화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관심들이 사람, 지역, 여행으로 옮겨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합쳐져 2012년 공정여행기업을 설립하였다.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기존 패키지 관광, 대중 관광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과정 및 관광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폐해를 줄

2) 박미혜,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2010, 857~858쪽 참조

3) 네이버 지식백과 시상상식사전 ‘공정여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757&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7. 6. 6.)

이고자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공정여행 기업 P는 숨어있는 부산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의 입장과 여행객들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공정여행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부산의 공정여행 기업 P를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부산의 P기업은 기업과 주민들 간의 소통 능력·리더의 업무 추진력·지역공동체 상생 능력·공정여행 기업의 설립 취지 등에서 여느 기업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P기업은 향도부산의 마을과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여행과 결부되면서 이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예술인들의 관심 증대 등 공정여행을 실제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어 연구사례로 적절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은 공정여행이 부산지역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 기업에 관한 문헌자료 분석과 더불어 심층면담 및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미체계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표피적으로 단순한 이해가 아닌, 심층적·경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정여행 기획자의 관점에서 부산지역 공정여행의 사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본 사례를 통하여 공정여행의 특성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공정여행 기획자의 인식을 기초로 한 연구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여행사, 정부 및 지자체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여행사에는 소비자의

공정여행 경험 인식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관련 공정여행 콘텐츠를 보완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는 공정여행에 관한 정보와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공정여행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 여행의 선택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는 관광과 여행 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정여행의 개념

‘공정’은 과정과 성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정당성에 대한 신념⁴⁾으로 올바르게 치우침이 없는 것을 뜻하며 Rawls(1971)의 『공정으로서의 정의』⁵⁾와 연결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된 원칙을 의미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한 분배는 공정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⁶⁾ 이러한 담론은 웰빙 의식의 확대, 윤리적 소비의 결합에 의해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⁷⁾ 따라서 공정무역은 이와 같은 공정의 개념을 적용한 무역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착취적인 관계가 호혜적으로 개선하는 목적을 가진

4) Bolton, R. N., Kannan, P. K., & Bramlett, M.D.(2000). Implications of Loyalty Program Membership and Service Experiences for Customer Retention and Valu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1), p.96 참조.

5)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6) 황희정 · 이훈, 앞의 논문, 2011, 81쪽 참조.

7) 엄은희,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 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33, 2010, 146쪽 참조.

대안무역의 형태이다. 공정여행의 ‘공정’은 이처럼 공정무역에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공정여행은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대하여 관광산업에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서구에서는 공정여행을 1988년 미국의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책임 있는 여행이 그 시초이며, 그 이후 영국에서는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여행자에게 있다는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의 설립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다.⁹⁾ 우리나라에서의 공정여행은 서구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¹⁰⁾, 2007년 사회적 기업 이매진피스의 설립과 활동이 인식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매진피스는 공정여행에 대한 연구모임을 시작하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공정여행사를 설립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출범 등 공정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¹¹⁾ 이매진 피스의 활동 이후 2009년 국제 민주연대의 활동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여행 관련 사회적 기업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들의 지속되는 활동은 여행문화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¹²⁾

우리나라에서 공정여행에 관한 최초의 정의와 특징은 이매진 피스의 임영신·이혜영(2009)의 저서에서 소개되었다. 이들의 저서는 공정여행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로 평가되며, 공정여행이 관광학 및 인접 학문

8) 김소윤, 「신 관광: 공정한 무역으로서의 공정여행」, 『여가문화연구』 17, 2011, 20쪽 참조

9) 이영진·송영민·윤지환,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에 관한 담론 -관광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4, 2012, 38쪽 참조

10) 이보미, 「공정관광 개념으로서의 농촌관광 가치 인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 황희정·이훈, 앞의 논문, 2011, 78쪽 참조.

12) 장은경·이진형, 「공정여행의 국내사례 -북촌 한옥마을 공정여행」, 『관광연구논총』 22-2, 2010, 29쪽 참조.

에서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들은 공정여행을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 즉 우리의 여행을 통해 숲이 지켜지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여행,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험하는 여행, 여행하는 이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이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여행, 쓰고 버리는 소비가 아닌 관계의 여행”¹³⁾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의 개념은, ‘공정무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접근에서의 공정 개념과, 생태·환경적인 접근의 공정, 문화적 접근의 공정 개념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정관광에서의 ‘공정’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발생하였지만,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임영신·이혜영(2009)의 저서 이후, 공정여행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공정여행에 대한 개념화와 함께 공정여행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김소윤(2011)은 소규모의 시민 사회조직으로부터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시작하였으며, 여행자와 여행 대상국의 국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자는 취지를 가지는 대안적 여행이라고 정의하였다¹⁴⁾. 황희정·이훈(2011)은 관광의 이해주체인 관광객 공정성·지역주민 공정성·관광산업 공정성·생태적 공정성 등 4개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관광객들은 고유한 관광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참여 기회의 공정성을 의미하여, 지역주민들은 관광편익의 분배의 공정성을, 관광산업에서의 공정성은 관광기업 간 또는 관광기업과 관광객 간의 공정성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공정성은 생태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공정여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¹⁵⁾

13) 임영신·이혜영, 『희망을 여행하라. 공정여행 가이드북』, 서울: 소나무, 2009.

14) 김소윤, 앞의 논문, 2011, 23쪽 참조.

따라서 공정여행은 이른 바, 착한여행, 책임 있는 여행 등 기존의 관광산업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대중관광이 소비자를 우선하고, 이에 초점이 맞춰진 여행의 형태라면, 공정여행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Kalisch(2001)는 공정여행을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관광의 요소로 보았으며, 그래서 착한여행이라고도 하는 공정여행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2. 공정여행의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여행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이루어진 후, 공정여행이 함의하고 있는 속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미혜(2010), 장은경·이진형(2010)은 공정여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연구를 통해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박미혜(2010)는 공정여행 연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공정여행 참여자들은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며,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⁵⁾ 장은경·이진형(2010)은 북촌 한옥마을 공정여행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서 공정여행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들의 사례에서는 원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지역에 대한 입체적 이해, 현지 숙소와 음식점 이용 등 공정여행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었지만, 질적 소통의 부족,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으로는 확대 해석 하기는 미약하다고 결론을 내었다.

공정여행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박미혜, 2010), 관광객의 가치와 공정관광 결과지각에 관한 연구

15) 황희정·이훈, 앞의 논문, 96쪽 참조.

16) 박미혜,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9-5, 869쪽 참조.

(조명환·정선자, 2012), 공정관광 운영자의 인식 및 공정관광 운영 현황(김경희·이상영·정명철·이선민, 2014), 공정관광 속성에 관한 연구(이태숙·김철원, 2015)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박미혜(2010)는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공정여행 경험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지속해서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공정여행의 활동에 대한 특성을 나눔과 봉사, 환경과 동물보호,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소통과 관계, 소비에서 체험으로, 윤리성과 공정성, 성찰하는 삶 등 7가지로 제시하였다. 조명환·정선자(2012)는 관광객들의 공정여행의 경험을 경제성·환경성·사회성을 지각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공정여행은 경제성(현지 음식 이용, 수공예품 구입, 현지 숙소 이용, 현지 물가 존중), 환경성(현지 자원절약, 동식물비 구입, 생수병 재이용), 사회성(적절한 옷차림, 현지인 이해, 현지 문화 존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이 와 같은 세 요소를 지각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 외(2014)는 국내 공정관광 단체 및 사업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과 공정관광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공정여행 특성은 자연지역 보존, 지역의 상품 구입, 지역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용,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역민 고용, 에너지 절약, 야생동물 보호, 문화유적지 보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물 절약, 쓰레기 재활용, 환경교육으로 고찰하였다. 이태숙·김철원(2015)은 공정관광의 속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경제적 속성(현지생산 먹거리 이용, 현지 생산품 구매,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처 이용, 현지의 숙소 또는 음식점 이용, 현지인 가이드 고용), 사회 문화적 속성(생활방식,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 관광지에서 만난 사람과 소

통하고 배려하는 노력, 지역의 음식을 맛보거나 전통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 자연 환경적 속성(일회용품과 화학세제, 폐기물 사용 최소화, 식사 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최소화, 내복 등 충분한 숙옷 준비하여 에너지 절약)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공정여행의 특성은 크게 사회문화적 공정성, 생태환경적 공정성, 경제적 공정성, 역사적 공정성, 가치의 공정성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정여행은 사회문화적 공정성을 가진다. 사회문화적인 공정성은 관광객들이 관광지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대중관광에서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대립적인 관계를 나타냈다면, 공정여행은 소통과 배려, 존중을 통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정여행은 생태환경적인 공정성을 가진다. 생태환경적인 공정성은 관광객들이 관광지 공간에 대한 공정성으로 자연환경, 환경보호, 동식물 보호와 관련이 깊다. 기존의 대중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무차별적인 관광지 개발을 단행하였다면, 공정여행은 관광지 개발보다는 기존에 전해 내려오는 마을 또는 인위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관광지, 즉 자연에 대한 관광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과 동물보호, 자연지역 보존, 에너지 절약, 쓰레기 재활용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공정여행은 경제적 공정성을 가진다. 경제적 공정성은 관광객들이 관광지 현지의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이 현지인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존의 대중관광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대부분 대기업 또는 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취하였다면, 공정여행은 관광지 현지인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대중관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 소외 현상 등에 대하여 공정여행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공정여행은 역사적 공정성을 가진다. 역사적 공정성은 관광객들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가치의 인식을 통하여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고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재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공정여행은 가치의 공정성을 가진다. 가치의 공정성은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여행을 의미하며, 무계획적인 소비에서 체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 자아실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한 공정여행의 특성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를 통한 공정여행의 특성 도출

대항목	세부항목
사회문화적 공정성	나눔과 봉사, 소통과 관계(배려), 적절한 옷차림, 현지인 이해, 현지문화(생활방식, 종교 등) 존중
생태환경적 공정성	환경과 동물보호, 자연지역 보존, 에너지 절약, 야생동물 보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물 절약, 쓰레기 재활용, 환경 교육
경제적 공정성	지역의 상품구입 및 숙박운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역민 고용, 현지물가 존중,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처 이용, 현지인 가이드 고용
역사적 공정성	문화유적지 보존
가치의 공정성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소비에서 체험으로, 성찰하는 삶

(박미혜, 2010; 김경희 외, 2014; 조명환 · 정선자, 2012; 이태숙 · 김철원, 2015의 연구참조)

지금까지의 공정여행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정여행은 관광 주체의 태도와 인식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¹⁷⁾. 그리고 공정무역에서도 달리 공정여행의 ‘공정’은 경제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생태환경적 ·

17) 박은경 · 박시사 · 오상훈, 『공정여행에 대한 관광전공자의 인식 연구 - Q방법론적 고찰』, 『관광레저연구』 27-4, 2015, 89쪽 참조.

사회문화적 등 다양한 접근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정여행은 다양한 속성과 접근을 통해 이해하여야 하며, 단순한 표피적 접근으로는 공정여행에 관한 적절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질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공정여행의 다섯 가지의 특성들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부산지역의 공정여행은 어떠한 의미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공정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P기업의 관계자 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3명은 P기업의 대표이사과 기획 파트의 직원으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매우 적합하다. 연구참여자 A는 사회적 기업 P를 설립한 대표이사이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정여행 청년 활동가로 많은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관광을 비롯하여 지역문화·공동체 등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B는 사회적 기업 P의 문화기획 파트 담당 직원이며, 직접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며 실천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C는 공정여행 기업에서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다. 이들은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을 다니는 목적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공정여행 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의 가치들이 공정여행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ID	직위	성별/연령	경력	인터뷰 정보	업무
A	대표	여/35세	6.5 년	2017.3.19./일대일 면접 2017.4.9./일대일 면접 2017.6.1./일대일 면접	콘텐츠 기획, 운영 등 총괄
B	직원	여/29세	1.8 년	2017.6.1./일대일 면접	콘텐츠 기획 담당
C	직원	여/28세	1.4 년	2017.6.2./일대일 면접	마케팅 홍보 담당

2.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료수집 도구로서 심층 면담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수집 형태이며, 연구주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심층적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얻는 방법이다. 심층면담은 2017년 03월 22일부터 2017년 06월 01일까지 4회 진행되었으며, 개인 면담으로 반 구조적인 면담과 비 구조화된 면담을 병행하였다. 질문 내용으로는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의 활동 배경, 활동 내용, 공정여행 콘텐츠 세부 내용, 애로 사항, 기타 특징을 주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담 장소는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상황에 따라 지역 콘텐츠 체험공간에서도 이루어졌다. 인터뷰 주요 질문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인터뷰 주요 질문

대주제	소주제
공정여행 활동 배경	공정여행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동기 등
공정여행 활동 경험	지금까지 기획, 진행 했었던 여행 콘텐츠 사례
	공정여행 참가자들, 다른 기획자들, 지역민 등 주변 반응
	공정여행 활동 에피소드
	즐거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점
삶에 주는 의미	공정여행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나에게 주는 의미
	공정여행 활동 목표 및 지향점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녹취 여부를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녹음기를 통하여 녹취를 하였다. 녹취한 자료는 전사과정(transcription)을 통해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공정여행에 관한 개념, 의미, 특성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도서자료, 보고서, 방송 자료, 논문 등을 수집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정여행 P기업 활동의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의 공정여행 실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하였다. 본래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Glaser &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에서 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자료의 분석법으로 개발되었다.¹⁸⁾

18) Glaser & Strauss, 이병식·박상욱·김사훈 역, 『근거이론의 발견 | 질적연구전략』, 학지사, 2012.

우선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녹음된 인터뷰 목소리 그대로 글로 전사하였고, 전사 작업을 완료한 후, 자료를 읽으면서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여 핵심적인 단어를 도출하는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개방코딩 이후 비슷한 내용들끼리 상호 비교의 과정을 거쳐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하위 주제의 핵심단어들이 본 연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단독작업에 따르는 편견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4. 연구윤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심층면담, 자료 협조 등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설계하기 전,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의 협조를 받았으며,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마다 연구 참여자들과 논의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꾸준히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윤리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공정여행 특성 사례연구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정여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며 개인적, 긍정적 요인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사례연구결과 부산 P기업의 공정여행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5가지의

특성 중 생태환경적 지속성을 제외한 사회문화적·경제적·역사적·가치의 공정성 부분의 특성은 유사한 맥락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생태환경적 공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 결과는 P 기업의 활동에 의한 분석결과이며, P기업이 부산지역 도심에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정여행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다른 부분의 공정성 보다는 생태환경적인 공정성 부분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사례를 통한 부산지역 공정여행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공정여행 활동을 통해서 숨겨진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콘텐츠화 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숨겨진 명소를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부산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출발지로서의 특성을 오롯이 담고 있는 지역으로 위안부 역사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은 물론, 참여자들에게 몽클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예술가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예술가들에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공정여행은 사람이 중심이 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움을 얻는, 질적 여행의 특성이 나타났다. 아래의 <표 4>는 반복적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이다.

<표 4> 반복적 비교분석의 결과

주제	하위 주제	구술내용
사회 문화적 공정성	지역 콘텐츠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은 여행, 관광에 특화된 도시 (A) ·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으며, 문화콘텐츠를 여행을 가지고 활용하고자 함 (B) · 부산에 있는 여행 자원들을 찾고 싶은 욕구 (B) · 지역자원들을 활용해서 여행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천동에 빵 집이 많아서 빵 투어를 기획하게 됨 (A) ·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여행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됨 (B) · 부산에 400개의 여행사들이 있지만, 지역의 자원들을 가지고 여행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은 2~3개 정도 밖에 안 됨 (C)
	지역 예술가들의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과 함께 하게 되었음 (A) · 부산의 예술가들이 많이 있음 (B) · 부산의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여행을 하면 더욱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음 (B) ·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여행콘텐츠를 통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됨 (A) · 지역예술가들에게 팬(fan)을 선물해주는 기회라고 여겨짐 (A)
경제적 공정성	지역 소득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 실현 (A) · 주민들과 함께 체험, 디자인, 마을민박 등의 프로그램 기획 (B) ·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 함 (A) · 마을여행의 경우 컵, 지도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마을에서 판매함 (C) · 지역주민들에게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함 (C) · 마을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 대개 잘 도와줌 (A) ·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의도 (B)
역사적 공정성	올바른 역사 인식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은 근, 현대의 역사자원들이 많이 있는 곳임 (A) · 사람들은 부산의 역사자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투어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B) · 소녀의 여행은 역사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여행콘텐츠로 기획함 (A) ·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무거운 주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짐(B)
가치의 공정성	사람 중심 질적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는 장소적인 한계로 인하여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됨 (B) · 사람들은 다양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음 (C) ·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 성장하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A) ·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보다는 여행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음(A)

1. 지역 콘텐츠의 발굴

지역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지역성을 반영하고 표출하는 지역 문화자원에서 기인하며,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에 의해서 기획과 개발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¹⁹⁾ 부산은 바다(동해, 남해), 산(금정산, 금련산), 강(낙동강, 수영강) 등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통해 생성된 관광 자원 뿐만 아니라, 바닷바람을 자랑하는 ‘바람 경관자원’, 심지어 온천 등 수질 관광자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수한 관광도시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달된 도시 경관이 담보하는 예술적 외모(artistic appearance)를 근간으로 하는 인문경관까지 적극 개발되면서, 부산의 관광 콘텐츠 유형은 한층 더 풍부하게 변모되고 있다.²⁰⁾ 이 외에도 부산은 피난민들이 만들어 낸 근대역사의 문화,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등 다양한 역사 문화를 함축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함축하고 있는 부산에서 P 기업은 이처럼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많은 지역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였다. P기업에서 발굴한 지역 문화콘텐츠는 매축지마을 · 강강이 영도마을 · 보수동 책마을 등 부산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마을과 골목이 중심이 된 것이 특징이다.

P 기업의 공정여행 활동을 통해 드러난 지역 문화콘텐츠로는 매축지마을, 영도 흰 여울길, 절영해안산책로, 안창 호랭이마을, 보수동 책방골목과 책마을, 영도 강강이 예술마을, 남천동 빵 골목 등이 있다. 마을은 지역민들의 경험과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삶의 터전이며²¹⁾, 도시의 골목은 인간의 실존과 역사, 문화적 경험과 그 기억의 실

19) 심상민, 『지역문화콘텐츠 확보와 성공적 문화도시 육성』, 『인문과학연구』 제35권, 2017, 207쪽 참조

20) 김남석, 『부산 해양관광콘텐츠의 활용과 변용에 관한 연구-센프란시스코 해양관광콘텐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33, 2017, 303쪽 참조

21) 이재민 · 임지혜, 『칠곡군 어로리 인문학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한국지역

재를 규정하거나 실현하는 주요 공간 역할을 해온 장소이다.²²⁾ 이 장소들은 본래 관광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된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이동하기 위해 조성된 마을과 골목이다. 이와 같은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광 콘텐츠화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축지마을은 부산진 시장을 많이 아시잖아요? 부산진시장에서 진영으로 넘어가는 오버 브리지, 거기 왼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땅을 메워서 만든 마을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 마구간도 있고, 해방 이후 피난민도 많이 들어온 마을이에요. 주변에 방직공장도 많이 있어서, 그때 일하셨던 분들도 거주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60년대, 70년대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날 것의 느낌이 있어서, 카메라만 갖다 대면 영화 촬영장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매축지마을의 사례, A, 2017.04.09.)

남천동에는 26개의 빵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빵집들마다 각자 맛있는 빵들이 다 달라요? 시그니처 메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빵집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은 단팥빵이 굉장히 맛있고, 어떤 집은 유명하고, 어떤 집은 찹쌀 파베기가 유명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번에 구청하고 협력해서 골목지도도 만들고, 팸투어를 다녀왔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남천동 빵집 골목, 일명 ‘빵천동’의 사례, A 2017.04.09.)

P 기업은 주민들의 거주 공간인 마을, 골목 등을 콘텐츠화 하기 위해

사회생활과학회지』 27, 2016, 594쪽 참조

22) 박승희, 『지역 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 · 대구 원도심 골목을 중심으로 · 』, 『한민족어문학』 63, 2013, 405쪽 참조

서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민들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구성이 완료되면, 홍보를 통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공정여행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대중여행은 이 과정에서 끝이 나고, 똑같은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정여행은 그렇지 않다. 공정여행은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여행객들에게는 즐거우면서도 착한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지역 예술가들의 정체성 확립

관광산업에서 예술 활동은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예술은 관광 상품에 생기를 더해주며,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증진시키고,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의 질적 향상 증가로 인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관광과 예술은 언제나 호혜적인 관계이며, 최근 여러 나라에서도 예술 공연물을 현지 관광개발과 접목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⁴⁾. 본 연구의 사례인 P 기업의 경우도 공정여행과 사진, 국악, 문학 등 각 분야의 지역 예술가들의 결합과 협력 과정을 통해 부산지역 특유의 예술이 반영된 여행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P 기업의 공정여행 활동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예술가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는 2017년 4

23) 신 나탈리아, 「문화예술관광의 발전 요건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쪽 참조

24) 장혜원·최병길, 「예술관광에서 감정반응의 역할」, 『관광학연구』 35-9, 2011, 426쪽 참조

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지마 예술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문지마 예술여행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P 기업은 이 지원사업의 기회를 살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지금은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 예술가들도 다들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예술가들은 진짜 드물고, 거의 80·90%는 다 허덕허덕하면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한테 팬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예술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를 소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문지마 예술여행의 사례, A, 2017.03.19.)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산에 있는 예술가들을 섭외하였는데, 대표님께서 네트워크가 넓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섭외를 했죠. 테마를 정했거든요. 사진, 영상 8번 하는데, 테마가 있는 예술여행으로.

(문지마 예술여행의 사례, B, 2017.06.02.)

P의 ‘문지마 예술여행’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예술가와 공정여행이 결합된 형태의 예술 여행 형태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지역 예술가들에게 ‘팬(fan)을 만들어 주자’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며, 사진작가·영상 디렉터·극단 연출가·지역 시인 등 다양한 테마의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예술가와 지속적인 공론장의 논의 형태를 가지고, 이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부산에 대한 생각, 철학, 가치관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여행코스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3. 지역민 일자리 창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여행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기획자와 주민들 간의 소통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공정여행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자와 주민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인 P 기업의 경우도 동래 동산마을,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의 사례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공정여행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지역 특산품 판매·숙박 사업 등 지역소득사업, 지역 경관 조성·마을 꽃길 조성 등 지역경관 개선 사업, 어촌체험·자연 민속 문화체험·폐교 활용 체험 등 지역 내 체험활동 등의 형태로 참여²⁵⁾를 통해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였다.

P 기업의 활동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을 넘어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관광해설사로 활동을 하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P 기업의 경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동래 동산마을,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을 배경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엄청 어렸을 때부터 사셨던, 몇 십년 동안 사셨던 분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 해설사 교육에 참여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게 크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70대, 60대 평균연령이 그 정도인데, 그런데도 청춘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짚어내서 실제로 마을 주민들만 할 수 있는 마을 해설사를 할 수

25) 이정훈, 「도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2016, 90쪽 참조

있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산마을 해설사 양성과정의 사례, B, 2017.06.01.)

마을 해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어디 가서 들어보잖아요? 만약에 궁궐 같은데 간다고 하면, 왕이 사는 궁궐? 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면의 뒷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면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행과 해설사에 관한 사례, A, 2017.04.09.)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 해설사가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마을을 직접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려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동산마을은 동래에 있는 도자기 체험마을인데, 9월부터 바로 주민들이 해설사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동산마을 해설사 양성과정의 사례, C, 2017.06.02.)

위의 사례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중에 기획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같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형성된 커뮤니티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단순한 공정여행 콘텐츠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을을 직접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해설함으로써 여행객들은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지역민들은 일자리를 가지게 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순환과정은 바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수익이 되돌아가는 공정여행의 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사

례가 될 수 있다.

4. 올바른 역사 인식의 기회 제공

부산은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5,000년에 이르는 역사적 깊이와 더불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의 현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40계단, 임시수도 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부산 근대 역사관 등은 부산의 치열했던 근 현대사의 험난했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문화자원들이다. 부산은 이들을 활용하여 많은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²⁶⁾

2017년 04월, P 기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를 테마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여행 프로그램 제목은 「4월 15일 소녀의 여행,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라는 제목이며, SNS 홍보를 통해 함께 할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면서,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겁게만 하지 않고...(중략)...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싶어가지고, 소녀의 첫 여행이 나중에 위안부로 가고, 못 돌아오는 컨셉으로 했어요. 돈 벌게 해준다고 그러면서요. 위안부 관련 전시관이 부산에 있어요. 거기 갔다가 마지막에는 영화 <어폴로지>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구성했어요.

(역사투어의 사례, A, 2017.04.09.)

26) 네이버 검색 ‘6.25 피란수도 부산 ‘유적 14개소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신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59905>(검색일 : 2017. 6. 18.)

그게 이번에 이슈가 되었잖아요? 부산에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은데, 그 장소들은 사실은 강제동원 역사관?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가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외진 곳에 있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 것이라구요. 위쪽에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런 곳이 있었나’,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슈는 되지만,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투어를 하면서 그때 상황들 접할 수 있는 꺼리들을 주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역사투어의 사례, B, 2017.06.01.)

일제 강점기 시절, 부산항은 강제 동원 출발지의 기능을 하였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접근성 등을 감안했을 때, 위안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안부에 대한 기억이 함축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부산에는 위안부와 관련하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조성 되었으며, 부산 동구청 주변에 소녀상을 최초로 설치하였다.

P 기업의 A대표는 최근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공정여행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P 기업의 위안부 투어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이슈가 되는 문제를 여행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조금 더 쉽고, 무겁지 않게 이해하려는 기획 의도가 있다. 또한 위안부 역사 투어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돌아가는 공정여행의 순환체계에 적절히 응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여행 콘텐츠 제작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쉽고 가볍게 다룸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5. 사람중심의 질적 여행

본 연구의 사례인 사회적 기업 P를 통해, 부산 공정여행의 특징은 바로 사람 중심의 여행, 질적 여행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여행의 참된 의미를 이행함으로써 기존의 대중관광이 가지지 못한 점들을 파악하며 공정여행을 실천하고 있다.

한 장소에 있더라도 그 지역민과 깊이, 그 여행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여행을 추구하는 편인 것 같고, 살아보는 여행? 저희 여행에 있어서는 사람이 항상 들어가요.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부산지역에 있는 여행을 기획하다 보면, 어떤 장소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면 이야기도 다양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사회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어떻게 여행으로 풀어낼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공의 목적들을 여행으로 풀어내는.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추구하는 질적여행, B, 2017.06.01)

사람들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고, 나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고, 소통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지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는 했지만,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그 자체가 문화인 거죠. 외국인들과 같은 방 쓰면서 지내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거기 좋은데 있으면 가보고, 현지 축제도 참여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는 현지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오랫동안 느껴봐

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을 추구하는 질적여행, A, 2017.04.09.)

공정여행은 여행지에 대한 배려로부터 출발한다. 즉, 여행지의 주민들과 여행 공간에 대한 배려는 공정여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공정여행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이들과 관계하는 모든 상황의 공유를 통해 자신에게는 성장이라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와 같이 공정여행의 질적여행을 통해서 여행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공정여행의 목적과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부산 공정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여행에 대한 부산 기업 사례의 연구이다. 많은 공정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관광도시 부산지역 공정여행의 특성을 사회적 기업 P의 활동과 실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 P를 사례로 하는 질적 연구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해방 이후, 국내 관광산업은 양적으로 무한한 팽창을 거듭하였지만, 환경오염·문화유산 훼손·지역주민 소외 현상·대규모 기업의 수입 편중 등 많은 부분에서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이 요구되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서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정여행은 공정한 거래를 강조하는 공정무역에서 그 개념이 생겨났으며, 이는 경제적인 공정성 외에도 생태환경적

인 공정성, 사회문화적인 공정성을 포괄하는 성격의 것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을 넘어서면서 확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이매진피스의 설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부산 지역 공정여행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공정여행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인 마을과 골목 등의 경관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에 따라 숨겨진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였다. 단순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 놓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도, 액자, 컵, 엽서, 팬시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경제적 공정여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정여행에 참여하는 마을 또한 마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 예술가들과 공정여행 활동의 협력에 따른 예술가와 함께하는 여행 콘텐츠는 생업활동에 급급한 지역 예술가들을 아티스트로서 재인식 시켜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주었다.

셋째, 공정여행 콘텐츠를 기획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 관광해설사라는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마을경제 활성화라는 공정여행의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넷째,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위안부 테마를 활용한 공정여행 콘텐츠 기획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무거운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고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의 커튼 속에 가려진 다양한 어젠다들이 세상의 터부와 장벽을 깨고 밖으로 나와 숨겨진 ‘진실들’을 언급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공정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중심의 여행, 질적 여행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사실 서구에서는 공정관광과 공정여행의 개념이 나누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들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인 공정여행 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을 추구하고 있었다. 여행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공정여행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의 특성 분석으로 갈음할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기제로서 P 기업의 공정여행 콘텐츠는 단순한 착한관광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을 배려하고 회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정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홍보·마케팅 부족뿐만 아니라, 공정여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상품의 홍보에 비할 데 없으며, 실제 면담결과 공정여행 상품에 대한 사람을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등 행정관서의 지원이 있다면 더욱 공정여행의 가치가 제고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정여행이라는 경험을 기획자의 입장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수행한 연구이다. 하지만 질적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참여자의 수가 3명으로 적고, 한 기업의 사례만 적용하여 이를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덧붙여 공정여행 기업 중에서는 생태적 공정여행, 경제적 공정여행 등 다양한 유형별로 강점이 있는 업체가 있지만, 본 연구에는 청년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공정여행 기업의 사례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여행을 중심으로 여행자, 지역주민,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 등 다양한 추진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 기업의 관점에서만 접근함에 따라 본 연구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여행 기업의 입장에서 특성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입장에서의 연구, 즉 공정여행 참여자, 지역 주민, 참여 예술가 등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 등의 실증적인 양적 분석도 요구되며,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공정여행 특성 그리고 공정여행 상품에 대한 가치와 한계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최근 여행이 여가소비문화로서 일상화 되고, 보편화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여행이 점차 확산되는 시점에서 나의 여행이, 나와 동료와의 여행이 사회적으로 공정한지, 환경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등의 영향을 생각해 보는 작은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바로 공정여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행의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저서

- 임영신 · 이해영, 『희망을 여행하라. 공정여행 가이드북』, 소나무, 2009.
 신경식 · 서아영 · 송민채 역(Robert K. Yin),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2016.

Glaser & Strauss, 이병식 · 박상욱 · 김사훈 역 『근거이론의 발견 | 질적연구전략』, 학지사, 2012.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Kalisch, *Tourism as Fair Trade: NGO perspectives*, Tourism Concern, London, 2000.

2. 논문

강성진 · 손호기, 「공정여행으로서 농촌관광 태도 및 만족과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30-5, 2015.

고동완 · 이상훈 · 오수진, 「공정관광의 장소애착과 책임관광 행동탐색」, 『관광학연구』 39-4(통권 130호), 2015.

김경희 · 이상영 · 정명철 · 이선민, 「공정관광 운영자의 인식 및 공정관광 운영 현황」,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김남석, 「부산 해양관광콘텐츠의 활용과 변용에 관한 연구-샌프란시스코 해양관광 콘텐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3, 2017

김소윤, 「신 관광: 공정한 무역으로서의 공정여행」, 『여가문화연구』 17, 2011.

박미혜,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2010.

박승희, 「지역 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대구 원도심 골목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3, 2013.

박은경 · 박시사 · 오상훈, 「공정여행에 대한 관광전공자의 인식 연구 · Q방법론적 고찰」, 『관광레저연구』 27-4, 2015.

신 나탈리아, 「문화예술관광의 발전 요건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심상민, 「지역문화콘텐츠 확보와 성공적 문화도시 육성」, 『인문과학연구』 35, 2017.

엄은희,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33, 2010.

이보미, 「공정관광 개념으로서의 농촌관광 가치 인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영진 · 송영민 · 윤지환, 「관광현상에서 공정성에 관한 담론 · 관광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4, 2012
- 이재민 · 임지혜, 「칠곡군 어로리 인문학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지』 27-S, 2016.
- 이정훈, 「도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2016.
- 이태숙 · 김철원, 「공정관광(Fair Tourism) 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0, 2015.
- 장은경 · 이진형, 「공정여행의 국내사례 · 북촌 한옥마을 공정여행」, 『관광연구논총』 22-2, 2010.
- 장혜원 · 최병길, 「예술관광에서 감정반응의 역할」, 『관광학연구』 35-9, 2011.
- 조명환 · 정선자, 「관광객의 가치와 공정관광 결과지각에 관한 연구: 윤리적 소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1, 2012.
- 최희신 · 이영환, 「공정여행 관련 홈스테이 사업의 지역사회개발효과 · 네팔 산간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9, 2015.
- 황희정 · 이훈, 「공정관광의 개념분석-이론화를 위한 고찰-」, 『관광학연구』 35-7, 2011

Bolton, R. N., Kannan, P. K., & Bramlett, M.D., “Implications of Loyalty Program Membership and Service Experiences for Customer Retention and Valu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1), 2000.

투고일 : 2017.6.20. 심사완료일 : 2017.12.4. 게재확정일 : 2017.12.20.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Fair Trade
Tourism of Busan
- The Case of a Youth Enterprise P for Fair Trade Tourism -

Lee, Jae-Min

Social ill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lienation of local residents, and uniform and trite contents are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tourism industry in Korea. Based on reflections and critical views of the conventional travel industry, fair trade tourism has emerged, drawing ever more attention. Busan has diverse contents for tourism, and the contents for fair trade tourism are increasing thanks to the efforts of some enterprises there, which deserve to be researched. Hence, this paper is aimed at ascertaining the values and significance of fair trade tourism in Busan through a study of the activities and practices of an enterprise for fair trade tourism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in Busan. To this end, qualitative methodology was employed, and focus-group interviews were held with three participants in the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discovered hidden tourism spots such as the Maechukchi and Anchang Horaengi villages and the baker's ally in Namcheon-dong, which create a virtuous circle by producing souvenirs and other tour-related products and returning the revenues from fair trade tourism back to the local community. Second, the study has found another example of fair trade tourism in Busan which operates a tour of artist villages in cooperation with local artists, thus renewing their identity as artists. Third, it found that the residents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of tourism contents, as well as creating new jobs such as tour guides. Fourth, the thematic tourism on the comfort women issue in Busan also drew the attention of younger participants to the serious historical issue by addressing it in an easy-to-understand yet moving manner. Fifth, fair trade tourism was found to involve travel that was quality-oriented, procedure-based, and human-centered. Therefore, the case studies in Busan demonstrate that fair trade tourism serves as a mechanism to reinvigorate the local community.

Keywords: fair trade tourism, contents on local culture, just tour, quality tour, local community